http://dx.doi.org/10.5392/JKCA.2015.15.02.466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Perceived through SNS on Teachers' Adult Attachment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백유미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Yu-Mi Baek(edubym@jbm.ac.kr)

요약

본 연구는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교사들의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3부의 응답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성인애착에서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지가 애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회피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지지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논의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SNS | 교사 | 사회적 지지 | 성인애착 | 직무만족도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perceived through SNS on teachers' adult attachment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In order to do so, survey was conducted on teachers and a total of 103 sets of respons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on social support perceived through SNS, with regards to adult attachment, it was shown that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instrumental support have influence on attachment anxiety. With regards to attachment avoidance, emotional support was shown to have statistically effective influence. In addition, with regards to influence of social support perceived through SNS on occupational satisfaction, it was shown that emotional support and informational support have effective influence on occupational satisfaction. In conclusion and discus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 keyword : | SNS | Teacher | Social Support | Adult Attachment | Occupational Satisfaction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는 웹상에서 사용자들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들이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등을 자유롭게 교환함으로써 의사소통 및 사고활동 촉진의 역

접수일자 : 2014년 10월 31일
수정일자 : 2014년 11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27일
교신저자 : 백유미, e-mail : edubym@jbm.ac.kr

할을 하므로 활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1]. 또한 SNS는 강한 유대감으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용도 외에 정보 공유와 뉴스 전달 등 외부의 낯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지닌 자원과 지식 및 정보를 드러내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2]. 실제로 SNS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로 매개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은 사람들은 오프라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3].

한편 사회적 지지감이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얼마나 관심과 사랑, 존중과 인정을 받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다[4].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관심, 도구적 도움, 정보, 칭찬 등이 포함된 대인적인 관계적 교류이며 지지의 근원에는 부모, 배우자, 친구, 동료, 성직자 등이 있다. 이들 관계에서 얻어지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이나 질은 매우 중요하다[5]. 이렇듯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말하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지체계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6]. 또한 사회적 지지는 조직 환경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직무성과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7], 업무 만족과 업무 생산성 및 심리적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줄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지지는 교사들의 스트레스, 역할갈등, 적절한 충고, 지원 등을 통해 개인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교사들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교사의 직무만족도라 말하는데 개인의 심리적 및 정신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무 만족도는 조직 커뮤니케이션 효과 변인으로서 주요한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직무만족도는 개인이 자기 직무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인 상태로 특정 조직의 고용을 통해 욕망이나 기대감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를 의미한다[8].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등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높고 심리적 특성은 직무만족도와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직무만족도와 성인애착과의 관련성을 보면 안정적 애착유형을 가진 성인들은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성과를 보였으며 직무에 대한 성실한 태도 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러한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은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또래나 연인으로 애착대상이 전환되는 과정의 결과이며 성인들의 연인관계에서 부모와 아동의 애착관계와 비슷한 애착이 형성된다[11]. Brennan, Clark과 Shaver는 성인애착을 애착과 관련된 성인기 외부세계 또는 타인 표상을 성인애착이라 지칭하면서 성인애착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 및 척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12]. 안정적인 애착의 사람은 이성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기반으로 하여 성공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으나 불안정 및 회피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이성 관계에서 자신을 거부하는 관계에 대해 무시하고 회피하기 위해 일에 몰두하게 되는데 이는 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애착의 사람만큼 일에서 성공적일 수 없다고 보았다[13]. 또한 애착불안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지지에 의지하는 경향이 약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지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며[14] 자신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다[15]. Kahn과 Autonucci은 애착이론을 사회적 지지 개념화에 이용하였는데 애착관계는 일생을 통하여 타인을 이용가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의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접촉의 근간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16]. 이렇듯 애착의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인식 정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애착의 질과 사회적 지지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시간이 경과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며 개인의 적응 및 건강, 안정감, 통제감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지지를 구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직무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17].

개인의 부적응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사회적

지지 안에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것과 전문적인 도움추구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SNS는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으며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롭거나 우울은 사람들의 경우 SNS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렇듯 SNS가 매체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보공유와 상호작용 기능과 같은 SNS가 가진 정보추구 및 관계증진 차원의 유용성이 검증되면서 다양한 기관에서는 그 장점을 살려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특정한 목적에 맞게 SNS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의미있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6].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실제로 발생한 거래를 기반으로 형성되거나 또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기반하여 형성된다. 전자를 획득된 사회적 지지라고 하고, 후자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또는 '사회적 지지감'이라고 부른다[19]. 대부분의 SNS 관련 연구[20]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사랑받는 감정, 소속감,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감 등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관심, 도구적 도움, 정보, 칭찬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포함된 대인적인 관계적 교류라고 정의하였다[21].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로부터 제공받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로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22].

2. 성인애착

성인애착이란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근접하고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안정적 경향성이다[17]. 이러한 애착은 사랑, 안정감 그리고 편안함에 대한 잠재력을 유발하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친구관계, 낭만적인 파트너 관계, 치료적 동맹 등)에 의해 활성화되며, 정서, 대처행동, 타인과의 관계형성, 자아인지, 직무 적응력, 성격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32].

Collins와 Read[10]의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이 안정감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타인과의 행동특성에 영향을 주며 부모와의 애착이 심리적 안정에 관여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Vogel과 Wei[36]는 불안애착은 심리적 불편감과 도움추구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반면에 회피애착은 자신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부인하고, 도움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지지를 적게 받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선행연구들[11][31]은 안정적 애착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정, 회피적 애착유형에 비해 직장에서 행동 및 태도 등에서 더 바람직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교사의 직무만족도란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27]. 이러한 직무만족은 교사의 태도와 가치, 신념, 욕구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직무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감정적, 정서적 만족 상태를 말하므로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김범준[28]은 교사들의 직무만족도 관련변인을 의사결정, 학교조직건강, 조직풍토, 지도성, 학교경영의 자율화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무근[37]은 직무만족 관련 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연령, 성별, 인종, 직업적 흥미 등을, 후자의 경우로는 보수, 복지시설 및 제도, 근무환경, 근무조건, 직장 내 인간관계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교사 직무만족도 하위변인을 아동과의 관계, 동료교사와의 관계, 교장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근무환경, 경력과 보상으로 하고자 한다.

4. 사회적지지, 성인애착, 직무만족도

양혜선[13]은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동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아동보다 성인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애착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17]에서는 부모애착의 질과 사회적지지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박은주[9]는 타인의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와 부정적 영향을 더 잘 견디며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지지는 교사들의 업무만족과 심리적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줄 변인으로 볼 수 있다.

Priel과 Shamai[14]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이 안정애착인 사람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지지에 의지하는 경향이 약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지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Hazen과 Shaver[11]는 불안정/회피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일을 충족되지 않은 애착욕구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불안정/양가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간주하였다. 그러나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를 보였고,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적었다. 박은주[9]에 의하면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등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높고 심리적 특성은 직무만족도와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애착과 직무만족도와 사회적지지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J대 원격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2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103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 표집의 일반적 특성들은 [표 2]서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1)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SNS를 통해 주변인에게 얻는 지지감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 Cohen와 Hoberman [21], 박지원[22]에서 사용된 오프라인 상의 사회적지지 측정척도를 김용찬 외[23]의 연구에서 목적에 맞게 수정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SNS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을 포괄하면서 SNS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자주 있다(5점)'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2) 성인애착 척도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Brennan 등이 '성인 애착의 자기 보고형 측정에 관한 통합적 개관'에 소개한 ECL(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을 사용하였다[24]. Brennan 등은 지금까지의 자기 보고 애착 측정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이미 알려진 회피와 불안 특성에 상응하는 두 가지 본질적인 독립요인을 산출하였고, 대상을 두 가지 요인의 점수를 토대로 4개의 그룹으로 근접시켰을 때 4개의 그룹은 Bartholomew 등의 4범주 척도에서 분류되는 유형들 보다 더욱 타당성이 입증되었다[23]. 7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로 구성되어 있고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애착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직무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노종희[26]의 질문지와 전성연[27]의 질문지의 내용을 보충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을 관찰하고 면담한 결과, 교사 직무만족도의 하위 변인을 아동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교장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근무환경, 경력과 보상으로 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SNS 사회적지지 지각 척도, 성인애착 척도, 직무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하위 요인	문항수	예시 문항	신뢰도계수 (Cronbach'α)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2	SNS를 통해 격려를 받는다	0.893
	정보적 지지	2	SNS를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는다	0.916
	평가적 지지	2	SNS를 통해 내가 잘한 일에 대해 칭찬받는다	0.800
	도구적 지지	3	SNS를 통해 헌혈증 등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0.772
	전체	9		0.944
성인애착	애착 불안	18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걱정된다	0.895
	애착 회피	18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0.844
	전체	36		0.878
근무만족도	아동	4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서로 협력한다	0.824
	동료	4	나는 동료교사들과 친하게 지낸다	0.837
	교장	3	나는 학교장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	0.860
	학부모	3	나는 학부모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0.875
	근무환경	3	나는 학교의 물리적인 근무환경이 만족스럽다	0.649
	경력과 보상	3	나는 교사로서 앞으로 승진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	0.639
	전체	20		0.907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특징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86명(85.8%), 여자가 66명(64.7%)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0명 더 많았다. 연령은 30대가 14명(18.7%), 40대가 56명(54.9%), 50대가 32명(31.4%)로 나타났다. 근무지는 초등학교가 65명(63.7%), 중학교 26명(25.5%), 고등학교는 10명(9.8%), 특수학교 1명(1.0%)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하는 SNS를 살펴보면, 커뮤니티 74명(71.8%), 그 다음으로 블로그 16명(15.5%), 미니홈피 11명(10.6%), 무응답 2명(0.19%)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SNS 접속 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이내이 82명(79.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2시간 19명(18.4%), 2시간 이상 2명(0.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인

문항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6	35.3
	여자	66	64.7
연령	30대	14	13.7
	40대	56	54.9
	50대	32	31.4
결혼상태	미혼	5	4.9
	기혼	97	95.1

학력	학사	70	68.6
	석사	28	27.5
	박사 수료 이상	4	3.9
근무기간	5년 이하	8	7.8
	6~10년	10	9.8
	11~15년	20	19.6
	16~20년	17	16.7
	21~25년	21	20.6
	26~30년	11	10.8
	31년 이상	15	14.7
근무지	초등학교	65	63.7
	중학교	26	25.5
	고등학교	10	9.8
	특수학교	1	1.0
주로 사용하는 SNS	커뮤니티	74	71.8
	블로그	16	15.5
	미니홈피	11	10.6
	무응답	2	0.19
하루 평균 SNS 접속시간	1시간 이내	82	79.6
	1시간~2시간	19	18.4
	2시간 이상	2	0.19
전체		103	100.0

2. SNS를 통한 사회적지지, 성인애착,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직무만족도간에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사회적지지, 성인애착,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분석을 보면, 사회적지지와 성인애착(r=.353, p<.001)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지지와 직무만족도(r=.029, p=.774),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r=-.101, p=.314)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과 성인애착을 보면, 정서적지지(r=.405, p<.001)와 성인애착, 평가적지지와 성인애착(r=.327, p<.001)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과 직무만족도에서는 어떤 하위요인도 직무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연구문제에 따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측정 변수간의 상관 관계

		1	1-1	1-2	1-3	1-4	2	2-1	2-2	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1								
	정서적지지	.931***	1							
	정보적지지	.900***	.800***	1						
	평가적지지	.938***	.834***	.791***	1					
	도구적지지	.912***	.791***	.712***	.850***	1				
성인애착	성인애착	.353***	.405***	.186	.327**	.383***	1			
	애착불안	.343***	.380***	.130	.337**	.421***	.895***	1		
	애착회피	.211*	.264**	.190	.167	.153	.717***	.332**	1	
만족도	직무만족도	.029	-.045	.141	.038	-.029	-.101	-.318**	.284**	1

*p<0.05, **p<0.01, ***p<0.00

3.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3.1 SNS를 통한 사회적지지가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이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9.9%(F=10.358, p<0.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정서적지지(β=.483, p<0.01), 정보적지지(β=-.590, p<0.001), 도구적지지(β=.428, p<0.05)가 애착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지지가 1점 상승할 때마다 애착불안 점수는 .210 상승하고, 정보적 지지가 1점 상승할 때마다 애착불안 점수는 .246 하락하고, 도구적 지지가 1점 상승할 때마다 애착불안 점수는 .268 상승한다. 즉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순으로 영향을 준다.

표 4.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들이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B	β	t	R^2	F
(상수)	1.951		15.346		
정서지지	0.210	0.483	2.756**		
정보지지	-0.246	-0.590	-3.863***	0.299	10.358
평가지지	0.019	0.037	0.187		
도구지지	0.268	0.428	2.545*		

*p<0.05, **p<0.01, ***p<0.00

3.2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애착회피에 미치는 영향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이 애착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8.1%(F=2.129, p<0.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정서적지지(β=.431, p<0.5)가 애착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가 1점 상승할 때마다 애착회피점수는 .120 상승한다.

표 5.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들이 애착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B	β	t	R^2	F
(상수)	2.753		29.503		
정서지지	0.120	0.431	2.148		
정보지지	0.001	0.003	0.017	0.081	2.129
평가지지	−0.040	−0.121	−0.539		
도구지지	−0.035	−0.087	−0.452		

*p<0.05, **p<0.01, ***p<0.00

4.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9.7%(F=2.612, p<.05)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정서적지지(β=−.427, p<0.5), 정보적지지(β=−.474, p<.01)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지지가 1점 상승할 때마다 직무만족도 점수는 .208 하락하고, 정보적지지가 1점 상승할 때마다 직무만족도 점수는 .221 상승한다. 즉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순으로 영향을 준다. 한편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들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B	β	t	R^2	F
(상수)	3.582		22.234		
정서지지	−0.208	−0.427	−2.148*		
정보지지	0.221	0.474	2.736**	0.097	2.612
평가지지	0.093	0.161	0.721		
도구지지	−0.116	−0.166	−0.868		

*p<0.05, **p<0.01, ***p<0.001

V. 논의

본 연구는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교사들의 성인애착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성인애착에서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지가 애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회피에서는 정서적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서적지지와 정보적지지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를 통한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들(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이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지지와 도구적지지를 많이 받고, 정보적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애착불안점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애착불안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와 매우 상반된 결과이다[29][30]. 반면에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31], Bowlby의 애착이론에서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타인 및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내적표상을 지니고 있어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32]. 따라서 동료, 가족, 상사 등으로부터 칭찬, 격려, 충고를 많이 받는 교사는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으로서 타인과의 관계

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애착 불안과 회피가 높은 교사일수록 SNS를 통해 정서적지지를 많이 받고자 몰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소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나친 칭찬과 격려는 교사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료 교사들 간의 지나친 간섭과 관심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지지 가운데 도구적지지 즉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금전적 지원을 해주거나, 시간을 내주거나, 물리적인 도움을 주거나)을 주는 것 등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 걱정하는 성인애착불안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지식을 SNS를 통해 제공받을 때 애착불안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NS 상에서 다양한 자원(특히 지식과 정보)을 공유함으로서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3]. 따라서 교사들에게 SNS를 통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이트나 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SNS를 통한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가운데 정서적지지가 애착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애착회피점수가 상승한다는 것으로 서구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심적 부담을 안겨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33]. 다시말해 SNS를 통해 타인에게 칭찬이나 충고를 많이 받게 되면 오히려 심적 부담이 생겨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약한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들 혹은 개인적인 관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지지는 애착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심적부담으로 느껴지는 회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SNS를 통한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들(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만족도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SNS를 통해 정서적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정보적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근무환경 내 인간관계를 통한 정서적지지와 동료 및 가정에서의 관계에서의 정보적 지지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4][35]. 따라서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료교사, 학급학생 및 학부모 등과의 SNS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아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교사들의 SNS를 통해 지각되는 사회적 지지가 성인애착과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연구문제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개인주의적/집단주의적 성향이 SNS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면대면/SNS 상황에서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단순히 자기보고식의 데이터가 아니라 내용분석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험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다양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임병노, 이준, “고등교육에서의 e-러닝 콘텐츠 실태와 시사점”,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3권, 제2호, pp.277-307, 2007.

[2] 박순주, 권민아, 백민주, 한나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289-297, 2014.

[3] C. W. Hsu, C. C. Wang, and Y. T. Tai, “The closer the relationship, the more the interaction on Facebook? Investigating the case of Taiwan users,” CyberPsychology, Behavior & Social

Networking, Vol.14, No.7/8, pp.473-476, 2011.

[4] P. Vedder, M. Boekaerts, and G. Seeger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ell being in school: The role of students' ethnic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4, No.3, pp.269-278, 2005.

[5] J. S. House,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Vol.31, 1981.

[6] S. Cohen and T. A. Wills,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98, pp.310-357, 1985.

[7] C. Baruch-Feldman, E. Brondolo, D. Ben-Dayan, and J. Schwartz, "Sources of Sacial Support and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7, No.1, pp.84-93, 2002.

[8] 이준일, 이지연, "조직내 커뮤니케이션과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91-507, 2006.

[9] 박은주, *유아교사가 지각한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조직효과성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9.

[10] N. L. Collins and S. J. Read, "Adults attachment, Wotking models and relationshil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1, pp.810-832, 1990.

[11] C. Hazan and P. Shaver,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No.3, pp.511-524, 1987.

[12] K. A. Brennan and J. K. Bosson, "Attachment-styl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and reactions to feedback from romantic partners: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al bases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4, pp.699-714, 1998.

[13] 양혜선,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14] G. N. Priel and D. Shamai,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Effects on affect reg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9, pp.235-241, 1995.

[15] 임수진, *성인애착과 사회적지지, 자아 존중감의 관계,* 전남대학교, 학생생활관연구, 2003

[16] L. Kahn and C. Antonucci,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Paul, B. Baltes and Orville, G. Brim, Jr(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17] 유영란, *성인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은폐의 매개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

[18] J. Morahan-Martin and P. Schumacher,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16, pp.505-515, 2009.

[19] 김은미, 나은영, 박소라, "면대면 상호작용과 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감 획득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친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2호, pp.110-152, 2010.

[20] 조윤경, 백영민, 김반야, "SNS 관계망에서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사회적 지지감을 형성시키는가?-관계망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연구, 제22권, 제2호, pp.5-31, 2014.

[21] S. Cohen and H. M.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1," Journal of App;ied Social Psychology, Vol.12, No.2, pp.99-125, 1983.

[22]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5.

[23] 김용찬, 심홍진, 김유정, 신인영, 손해영, "소셜네트웍서비스에서의 공유행위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제56권, 제3호, pp.28-50,

2012.

[24] K. A. Brennan and J. K. Bosson, "Attachment-style differencesin attitudes toward and reactions to feedback from romantic partners: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al bases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4, pp.699-714, 1998.

[25] K. Batholomew and L. M. Horowitz,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of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pp.224-226, 1991

[26] 노종희, *교육행정학: 이론과 연구*, 서울:문음사, 2001.

[27] 전성연, *교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1982.

[28] 김범준, *교사들의 직무만족도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29] 김경미, *대학생의 성인애착, 사회적지지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30] 이지영, *부모 및 또래 애착,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31] 임윤선, *성인애착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존재감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숙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2.

[32]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3.

[33] D. C. Ganster, M. Flusilier, and B. T. Mayes, "Role of social supports in the experience of stress of stress at work,"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71, pp.102-110, 1986.

[34] 권영미,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사회적지지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4.

[35] 이성대, 염동문, "청소년의 게임중독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8호, pp.229-239, 2013

[36] D. L. Vogel and M. Wei,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 The mediating role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2, pp.347-357.

[37] 이무근, *직업교육학 원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3.

저 자 소 개

백 유 미(Yu-Mi Baek) 정회원

- 1998년 2월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학사)
- 2001년 2월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09년 8월 : 한남대학교 교육심리 및 상담심리(교육학 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교육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가족상담, 청소년 집단상담, 노인상담